

2009 보은의 자장면 III

한 때 10 만 명에 육박했던 화교들이 탄압과 차별로 이 땅을 떠나 이제 겨우 2 만 명도 채 안 된다. 이들 화교들과 민변 (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) 등 시민단체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추진위원회 (공동위원장: 유국홍 & 양필승)을 중심으로 영주권의 법제화와 차이나타운의 건립을 추진하여, 모두 성공을 거둔바 있다. 이에 2007 년부터 소수민족의 선두주자인 화교들이 정주 외국인들에게 “보은의 자장면”을 만들어 제공하게 되었다. 나섬공동체의 “다문화가정,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체육대회”에 참여하여, 지난 5 월 24 일 500 여명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만들어서 금년에 3 번째로 보은의 행사를 거행했다.

1. 지난 5 월 24 일 광장초등학교에서 개최된 ‘2009 제 14 회 다문화가정,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체육대회’ (사진: 여약사신문 김한성 기자)



2. 자장면 행사에 참여한 화교들, 유국홍

서울차이나타운추진위원장 (가운데)



3. 자장면을 배식하는 모습



4. 자장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



5. 자장면 행사에 참석한 민변의 안영도 변호사님 (왼쪽)

